

2024년 11월 24일(주일) 제1710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늘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

찬양예배 시 17대 장로 · 16대 안수집사 · 15대 권사 임직식 거행

오늘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17대 장로로 임우택 안수집사, 그리고 16대 안수집사 8명, 15대 권사 19명이 안수 받고 중직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명단>

- 장로 임직자 : 임우택
- 안수집사 임직자 : 임종열 김창곤 감우균 구성현 김동환 백성훈 최근우 차주호
- 권사 임직자 : 전금수 채형숙 서수녀 정미숙1 오현숙1 권애란 이신애3 박은진1 김영현 김희 손지희 전미경 박미숙2 전화선 김선혜2 이현정1 노애리 고은희1 손영희 (나이 순)

장학기금의 꿈과 비전

서울교회는 '천국시민 양성' 목표의 일환으로 매년 신학생, 교역자 자녀, 선교사 자녀, 그리고 교회 내 일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넘치지 않은 기금을 이유로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중 양춘경 은퇴장로 · 이인숙 은퇴권사 가정에서 장학금으로 일억 원을 '이인숙 장학금' 명목으로 헌금하시며 교회 안팎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해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장학금을 기부하신 양춘경 은퇴장로 · 이인숙 은퇴권사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갖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학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장학헌금 전용계좌>를 새로 만들었으니 장학헌금을 드리실 때는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가 있어 되기를 바랍니다.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2024 성경암송대회 수상자 추가 명단

중등부 : 김수아
유아부 : 고승준 김노아 김로하 나호준
류태선 백나은 최수아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허정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2025 봉사 부서 신청

지난 주일부터 2025년 봉사할 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 부서의 변화가 없으신 성도들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서 이동이나 새로이 봉사하고 싶은 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서울교회에 최소 1인 1사역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상단 :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단 왼쪽 : 할렐루야찬양대의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하단 중앙, 오른쪽 :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년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손달익 위임목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서울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3년간 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세우신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세 기둥의 사명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가며,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원로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과 변함없는 헌신이 오늘의 든든한 서울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와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아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소망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과 관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이어 나가며, 이를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33년간 우리 교회를 지탱해 온 영적 기반이자 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세 기둥이었던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거룩한 전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전통을 계승할 때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랑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나이와 직업, 삶의 경험과 신앙의 깊이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에,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고 채워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지닌 여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때 한 몸 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된 현대인들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Z 세대와 알파 세대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사고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의 영적 갈망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민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혁신되어야 하고 탁월한 적응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년 전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서울교회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어온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서울 가족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장로 임직자에게

장로의 십계명을 만들어보길...



최형열 장로
(당회 서기)

장로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서울교회를 함께 섬기게 됨을 기뻐하며, 장로 임직을 축하합니다.

장로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 스스로 <장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길 다짐합니다.

1. 서로 사랑하라
2. 항상 기뻐하라
3. 범사에 감사하라

4. 쉬지 말고 기도하라
5. 한 알의 밀알이 되라
6. 양 무리의 본이 되라
7. 섬기는 종의 종이 되라
8.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9.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지켜라
10. 먼저 불 켜고 맨 나중에 불 꺼라

장로 임직을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울교회와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임우택 안수집사
(장로 임직자)

부지깡이만도 못한 저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내 사랑 서울교회의 일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일인 오늘, 서울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온 것은, 신실하신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다짐하면서, 서울교회를 이끌어 오신 어머니와 아버지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어머니를 따라 새벽예배를 다니면서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호주로 섬기는 믿음의 계대를 4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진로를 결정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생계를 위해 그물을 기웠듯이, 저도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녔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제일주의, 코람데오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전도하기를 삶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님이 제게 허



락하시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라는 말씀을 붙잡고,

• 주님과 서울교회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 주님이 양들을 돌보듯,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라는 말씀을 이루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종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빨셈의 봉사자가 아니라 덧셈의 봉사자가 되시길 바라며



차영도 장로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오늘 제16대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여덟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음으로 스테반회의 회원이 되신 여러분들께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신앙의 선배로 세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스테반회 회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반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들겠지만 이는 금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리더(Leader)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팔로워(Follower)가 되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는 내가 모임의 주관자이지만 다른 모임에서는 내가 회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작 내 모임의 회원이 다른 모임의 주관자로 참석을 권유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내가 회원이면 열심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하시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봉사와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테반회 회원들은 교회 8층 식당과 지하층의 주차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순번제로 맡게 될 것인데 자기 차례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감 있게 성실히 봉사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개의치 마시고 이 일은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봉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몸담고 있는 조직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빨셈의 봉사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더하여 맡는 덧셈의 봉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반회 목적은 회원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인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 외에도 각급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공적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일 찬양예배에 솔선수범하여 참석하시어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안수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여덟 분들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우 집사
(안수집사 임직자)

2024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고,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겨 달라는 저의 기도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예배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손달의 위임목사님의 “기도하라”, “정신차리고 살아라”, “믿음을 잘 준비하고 지켜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는 설교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삶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오직 기도와 예배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모두 내려놓으니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히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친척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있는 동안 서울교회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친할머니께 전해 드렸을 때, 기뻐하시며 장남인 저에게 신앙의 뿌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 순천 지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을 저희 증조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모셨습니다. 그 집



이 순천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의 뿌리가 저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서울교회 16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울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잘 물려주고 싶습니다.

서울교회 16대 안수집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만 붙들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향한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서울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장석남 목사님과 박미라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2024년 임직자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강인 장로
(기획위원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시게 되신 열아홉분의 신임 권사님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임 권사님들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제는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시어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며 교회에 순종할지언정 원망과 불평의 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 마디, 배려있는 행동 하나가 교회에는 덕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본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에는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시고, 때로는 가정도 잠시 접어두신 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리신 그 분들이 계

셨기에 지금의 서울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선배 권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후배의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서울교회에 4대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임 권사님들은 허탄한 말이 아닌 기도로 교회를 돕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모퉁이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교회 안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의 모습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권사 임직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디딤돌이 되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리 집사
(권사 임직자)

죄인 중의 죄인인 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가 날마다 쌓여가는 중에, 또한 귀한 권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고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교회가 태어난 1991년 늦가을, 고3이었던 저는 엄마 아빠의 한마디, 우리는 서울 교인! 이라는 말씀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자라온 믿음의 밭은 풍요로운 말씀의 밭이어서 저는 그냥 있기만 해도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 돌보아야 하는 나이였어도 주일학교에 대한 섬김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배워온 그대로 행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6월의 흥해 작전은 서울교회에서 자라나 20대의 작은 어른이 된 딸들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함께 다락방 모임을 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고 돕고 위로하고 힘내주었던 6교구의 다락방 식구들은 제가 평생 빛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약하고 민낯같은 모습도 서로 품어주며 사랑해 주므로 힘이 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다락방 식구들, 진심 다락방 식구들이 있어서 오늘의 감사가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피택 권사 교육 기간 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해주신 조원영 목사님, 하나님의 절대주권 장로교의 요리 문답을 짧고



짧게 요약해서 알려주신 양정호 목사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을 정리해 주신 김익환 목사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신약을 정리해주신 현종필 목사님, 회중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지도해 주신 장석남 목사님, 전도에 대한 강의를 현장감 있게 연습시켜주신 박미라 목사님,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로 땀 흘려주신 최종국 목사님, 매 주일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늘 은혜였습니다.

70인전도대를 통해 전도 실습을 했던 다섯 번의 시간은, 행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었던 사랑부의 예배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권사 임직을 앞두고 그 무엇보다도 서울교회가 새로운 시즌, 새로운 목자의 시대로 안정되게 자리잡는 시간에 디딤돌 같은 권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사명을 따라 일하는 권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지금까지 예배때 마다 흘리시는 눈물처럼, 서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때 마다의 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피택 받고 교육받은 귀하신 열여덟 분들의 15대 신임 권사님들을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요로운 믿음의 밭, 서울교회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2024 사명자대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11월 18일(월요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창 1:26-31)

행복은 세상의 제도나 사상이나 문화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다음의 세 가지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①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 ②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 ③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만드시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26절) 우리는 흔히 '형상'을 외모로 생각하지만 '형상'은 '속성', 혹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의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인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행복은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졌고,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조화도 깨어졌고, 자연과도 조화도 깨어지게 되면서 땅에서 가시와 영경귀가 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고통스럽고 개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세상은 전쟁의 연속이고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뿐인 혼돈 속에서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를 극진히 아름답게 만드셨던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1월 19일(화요일) 광야 길에 임하신 하나님 사랑 (출 40:34-38)

사람들은 힘든 삶을 두고 인생이 광야 길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광야 길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 항상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마실 물이 없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양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망명자가 되어 쫓겨나 양치기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도 그는 양치기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2. 이스라엘은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도 성막을 짓고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막으로 나갈 때마다 또 한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또 한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십시오

광야 길에서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가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광야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감당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과 더불어 살아가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며 친히 뵈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결정합니다.

11월 20일(수요일) 성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 (신 7:6-11)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는 사람들로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거류하였다'고 자기들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고대 바벨론 문명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그런 문명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다만 출산하지 못한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몸만 나왔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6절). 초기의 이스라엘은 방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첫째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바쳐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합니

다. 기업은 소유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크게 발전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관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상호 소유 개념으로 설명하며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신 30:9-10, 습 3: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심혈을 기울여 양육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효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매우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신 7:11)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지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1일(목요일)
버려진 자에게 임한 하나님 사랑
(삼하 5:1-5)**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셉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사람, 잊혀진 존재였던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버려진 자리, 잊혀진 자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다윗은 청년 시절을 무척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사울이 악령

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르며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사울의 측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에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승리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로 다윗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암살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칼을 피해 광야를 전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줄잡아 1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다윗의 편에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울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짐을 지면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잊혀진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느 날 왕으로 세우십니다. 완벽한 역사의 반전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세 차례나 왕의 즉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분이 되었던 지도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죽기 바로 전에 지은 찬송에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삼하 22:2)

때때로 우리도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데 곁에는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롭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외로울 때도, 버려질 때도, 잊혀질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1월 22일(금요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사랑
(눅 23:39-43)**

구약 성경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은 가장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좋다'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사람에게 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좋은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되어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은 이 강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로마 군병도 군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대꾸하시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한 강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학자 제롬은 이 부분에 대해 '십자가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일깨워 회개하게 했다. 사람은 편안한 침상에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이 아름답지 못했고 극형에 처해질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한 사람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의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최소한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온전한 낙원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강도는 부스러기 은총을 구했지만 주님은 오늘 바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요약·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CHUN KWANG YOUNG

Aggregations:
Resonance, In-between

2024. 12. 4
- 2025. 2. 2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 개인전
《Aggregations: Resonance, In-between》가나아트센터
2024. 12. 4(수)- 2025. 2. 2(주일)

식사 제공



- 5교구 임우택 안수집사 · 김정숙6 권사
임주현 · 임채언 · 임수현
(장로 임직을 받으며)

햄살 40kg 기증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무명의 성도 가정에서 햄살 40kg를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쌀로 추수감사절에 전 교인께 점심식사를 더욱 맛있게 제공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세요?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문자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연락처 : 010-2376-3892번으로
- 문자 양식 : 교구, 성명, 상담분야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떡 제공

- 임직감사예배 마친 후 참석하신 분들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 일동이 준비한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11.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6	도르가, 루디아, 보비
11.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11.13	마리아
11.17	자원자	모세	11.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1.24	자원자	이삭	11.27	리브가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1월25일	월	고전 10:23-12:31
11월26일	화	고전 13-16
11월27일	수	고후 1-3
11월28일	목	고후 4-8
11월29일	금	고후 9-13
11월30일	토	갈 1-3
12월1일	주일	갈 4-6

맥체인 성경통독			
대상21	벧전2	욘4	눅9
대상22	벧전3	미1	눅10
대상23	벧전4	미2	눅11
대상24,25	벧전5	미3	눅12
대상26,27	벧후1	미4	눅13
대상28	벧후2	미5	눅14
대상29	벧후3	미6	눅15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 향기가 짙어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더 깊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 넓어지게 하소서.
2. 50일간의 사명자대회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3.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홍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